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베드로전서 1:3~11. 신앙의 시련을 충실하게 견디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30~35분)

칠판에 답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답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답이 필요한가?

칠판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준 위안의 말씀을 적는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도 이 소망과 지식은 모든 환란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었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92쪽)

학생들에게 이 “소망”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하고 그들의 생각을 칠판에 적는다. **이더서 12장 4~6절을** 읽고 소망을 묘사하는 주요 단어들을 찾는다.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가?
- 이더서 이런 종류의 소망을 무엇에 연관시켰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그들 생활에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방식을 이야기하게 한다.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읽고, 천둥, 번개, 지진, 전쟁을 학생들이 제안한 말들로 바꾼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영화로운 부활을 믿는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인생에서 난관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를 우리를 잡아주는가?
- 우리의 답이 깊게 자리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이 소망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이겨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것”을 앞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의 용기가 커지는가?
- 시련은 왜 우리의 답을 잡아당기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는가?

베드로전서의 소개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의 내용(오른쪽)**을 읽고 고대 성도들이 직면했던 시련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신앙을 시험했겠는가? 교회 회장으로서 베드로가 그들의 환난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의 성구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베드로전서 1:3~11; 2:19~25; 3:8~17; 4:12~19.**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인상깊었던 시련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서 적게 한다. 반 전체가 학생들이 찾은 것에 대해 토론한다.

신앙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께 답을 내리고자 하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2장 21절, 3장 17절, 4장 12~13절을** 읽는다. 우리가 신앙의 시련을 견디는 것이 구원의 길에서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간증함으로써 끝맺는다.

베드로전서 2:1~17.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과 따로 구별될 것을 요청하셨다.(20~25분)

칠판에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위의 목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하나 택하도록 한다. 어떤 학생이 택하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묻는다. 그들에게 이유를 묻는다. 나머지 세 단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일반적으로 그의 소유된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의미에서 다른, 낯선, 또는 이상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베드로가 성도들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그의 소유가 된”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한 호칭인가? 이 표현에 대한 **러셀 엘넬슨 장로가** 언급한 내용을 들려준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peculiar라는 단어는 ‘귀중한 보물’, ‘하나님이 ‘만드신’ 혹은 ‘선택하신’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주님의 종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라고 보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4월, 44쪽;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34쪽)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대가를 찾아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것처럼 큰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3~25절**에서 또 다른 그룹은 **베드로전서 2장 1~17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발견한 원리들을 칠판에 열거한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쪽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읽는다.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는가?
- 그분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혹은 독특하게 할 수 있는가?
-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의 표준에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 곧 세상의 방식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간증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성약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기로 택한다면, 우리가 특별하고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간증한다.

역사적 배경.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에게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회는 온 천하에(마가복음 16:15) 복음을 전파하는 신성한 사명이 있었으며, 복음 메시지를 로마 제국에 널리 전함으로써 이 사명을 시작했다. 비록 복음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파되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서 오실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는 로마의 군주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메시지만은 아니었다.

서기 64년경에 화재가 일어나 로마의 많은 곳이 파괴되었다. 네로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원성을 들어야 했다. 비난을 돌리기 위한 대상으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했다. 곧 제국 내의 성도들이 증오와 오해로 인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관용에서 적대감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성도들에게 큰 근심을 가져왔다. 이 무렵 베드로는 고난 중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그들의 충실함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 서한을 썼다. 베드로는 이 서한을 바벨론(베드로전서 5:13)에서 썼는데 이는 아마도 로마를 의미할 것이다.(경전 안내서, “바벨론”, 89쪽)